

# 10월의 안테나

노영환

(본지 편집국장)

## 사료용 수입곡류 안정기준가격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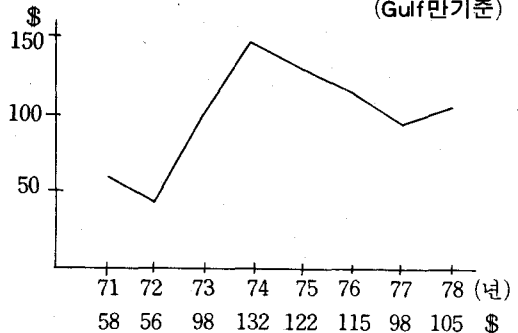
73년 후반기의 혹심한 석유파동은 국내 축산업도 큰 충격을 주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였던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이때의 파동은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의 폭등 때문이었다.

당시 업계 지도자들이 후회한것도 옥수수수 톤당 50 \$선일때 안정기금을 적립했었다더라면 74년의 축산 파동은 막을 수 있지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료용 수입곡류에 얼마의 기금을 가해 적립하기 시작한 것이 75년

제 1차 석유파동때의 옥수수 가격폭등  
(Gulf만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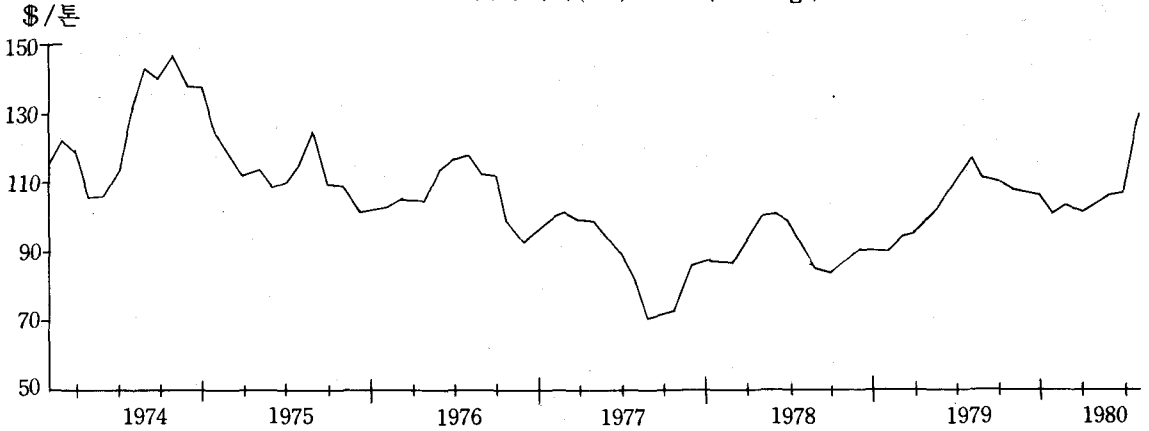


7월 31일 부터 이었다.

그러니까 햇수로는 벌써 6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그간 이 기금이 배합사료 가격 안정에 기여한공도 크며 사료공장의 시설현대화 등에 자금이 용자되었고, 원료 도입도 이자금으로 수입 되고 있는 등 유효하게 쓰여지고 있다. 더욱이 작년 같은때 환차손 보전에 약 21억, 국산옥수수및 도입옥수수의 가격 차액 보전에 54억 정도가 보전되어 이 액수만큼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준것 등이

옥수수가격 (No.2, Yellow, Chicago)



양축가나 사료공장이 이 기금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대표적 예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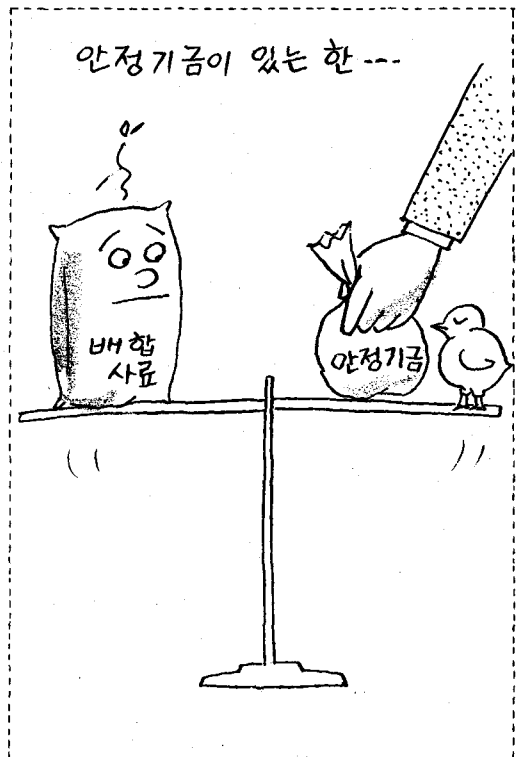
알려진 바에 의하면 9월 중순 현재로 기금 총 조성액 2백 4십 8억여원 중에서 가격 차액교전 54억 환차손보전 21억 용자금 16억 6천등 (다시 회수됨) 기금사용액 1백 8억 여원을 공제하면 현재 약 1백 4십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이중 옥수수등 원료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원료 수급조절자금 1백 20억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용가능한 액수는 20억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또 매년 국산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보리수매가격 정도의 옥수수 수매가격이 인상될 경우 보전액이 커져서 80~90억 정도가 될 것이고 예상되어 적어도 100억 정도의 기금은 준비해야 할 형편이다. 현재의 안정기준가격 t당 195 \$을 180 \$ 정도로 15 \$을 내리면 연말까지 약 110억 정도의 사용기금이 적립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사료공장이나 일반 양축가들의 심정은 그간의 적자운영과 양계산물의 생산비 상승으로 소비가 감퇴되어, 생산비 절감으로 소비를 증가시켜 업계의 활로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현재 계약한 옥수수 도입가격이 140 \$대 까지 구입하고 있어 계속 195 \$선으로 안정

기준 가격이 유지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부로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축산업이 모처럼 안정권에 들어간 이때 사료 안정기금의 본래 목적이 배합사료 가격의 안정으로 축산물 가격 안정에 있는만큼, 안정기준 가격인 하에도 충격요법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사료용수입곡류안정기준가격변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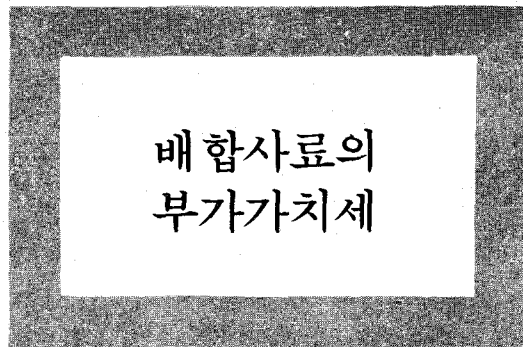
년 도 별	산 지 별	품 목 별	기 준 가 격		적 요
			\$	₩	
75. 7 / 31	태 국 산	옥 수 수		72,750	C&F \$ 150기준
12 / 31	미 국 산	" "		74,205	" \$ 153기준
76. 1 / 1	태 국 산	옥 수 수	132		
1 / 1	미 국 산	" "	135		
77. 8 / 11	없 음	수 수	130		76. 8. 31 시행
8 / 12	태 국 산	옥 수 수	127		
	미 국 산	" "	130		
	없 음	수 수	125		
78. 5 / 21	"	소 맥	125		77. 9. 2. 시행
5 / 22	"	옥 수 수	135		
	"	수 수	130		
79. 6 / 4	"	소 맥	132		
6 / 5	"	옥 수 수		70,500	C&F \$ 135기준 기준가격제로 철폐
	"	수 수			
80. 1 / 21	"	소 맥			
1 / 22	"	옥 수 수	160		
10 / 30	"	" "	185		수수는 안정기준가격에서 제외
12 / 27	"	" "	195		

(한국사료협회자료)

앞으로 옥수수 구매제도의 다변화에 따라 안정기금 적립운용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공청회 같은것도 개최되리라고 생각되어지나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가격제도와 도입액에 일정율을 부과하는 방법등의 장단점 등도 검토 되어야 하겠다.

기금의 운용도 당초의 가격안정에서 많이 변질되어 사료공장의 시설이나 보완 경비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기금의 사용 범위문제도 재고 되어야 하겠다.

다행이 미국에서 옥수수 풍작이고 내년 봄까지는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런기회에 사료축산 부분의 많은 주름살을 펴주는 기회로 삼아 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축협사료 공장이 아닌 일반 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게된다.

세금 계산서를 보면 사료값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양축가들은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생산비로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어 자연 생산비

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산자(양축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배합사료 원료에 의제 매입 공제제도를 채택해서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의제매입 공제제도가 양축가들에게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료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실제 원가계산담당 직원 외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배합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를 예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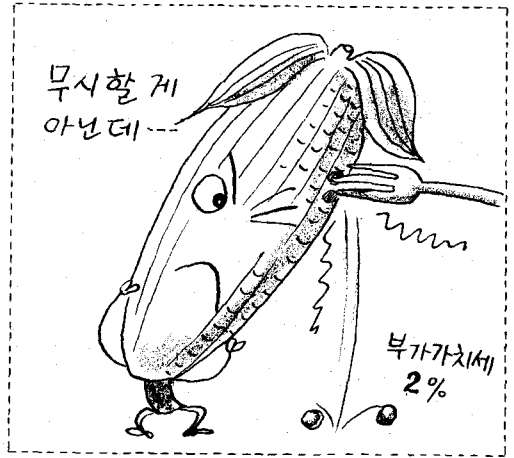
옥수수를 일반 사료공장들은 옥수수값에(FOB)미국 수출항구에서 부산 또는 인천까지 운반하는 선임과 해상보험료, 신용장개설제비용, 텀차지, 사료안정기금, 하역제비용, KFX(정보보유팔라)이자입체금리, 사회협회회비 기타를 합한 톤당 152,800원(환율등요인에 의하여 옥수수 가격이 그때그때 차이가 있음)에 구입하게 된다.

Kg당 152원 80전에 구입하여도 원가계산은 의제 매입 공제로 10/110%를 공제한 138원 91전에 방위세 3원을 포함하여 141원 91전으로 실제 원가계산을 하고 차액(152원 80전 + 3원 - 141원 91전) 13원 89전은 제품을 만들어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공제한 차액만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현재 의제 매입 공제를 받는 품목은 옥수수, 소맥피, 수수, 잡곡, 미가공 농수산물등에 한하고 있으며 의제 매입 공제를 받지 못하는 어분, 대두박 등 기타 원료에 의한 양축가의 부가 가치세 부담율은 약 2%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양축가들은 약 2%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며, 만일 현행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약 2%의 사료구매비용이 절감하는 것이면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양축가들은 약 2%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며, 만일 현행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약 2%의 사료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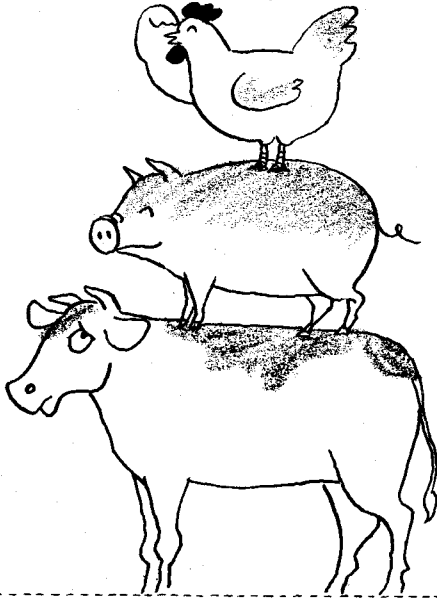
비용이 절감하는 것이지 10%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2%로 하면 매우 적은 액수 같이 생각되어지고 양계 생산비중 사료비가 65%로 보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1.3%로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으나, 과거 10여년간 계란이나 닭고기의 가격이 일반 소비자 물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수익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양계농가들은 이 차이를 규모의 확대를 생산성 향상으로 메꾸어 왔으나 이제는 여기에도 한계에 이르러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또 물가 안정을 정책의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비록 적은액수이지만 감면해주기를 양축가들은 원하고 있다.

## 계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바뀌고 있다

농수산부는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의 농림수산정책을 발표하였다.

축산물 수요전망은  
보시는 바와 같은 순으로 ---



크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식량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주식은 미곡으로 생각되어 오던 것이 이제 감자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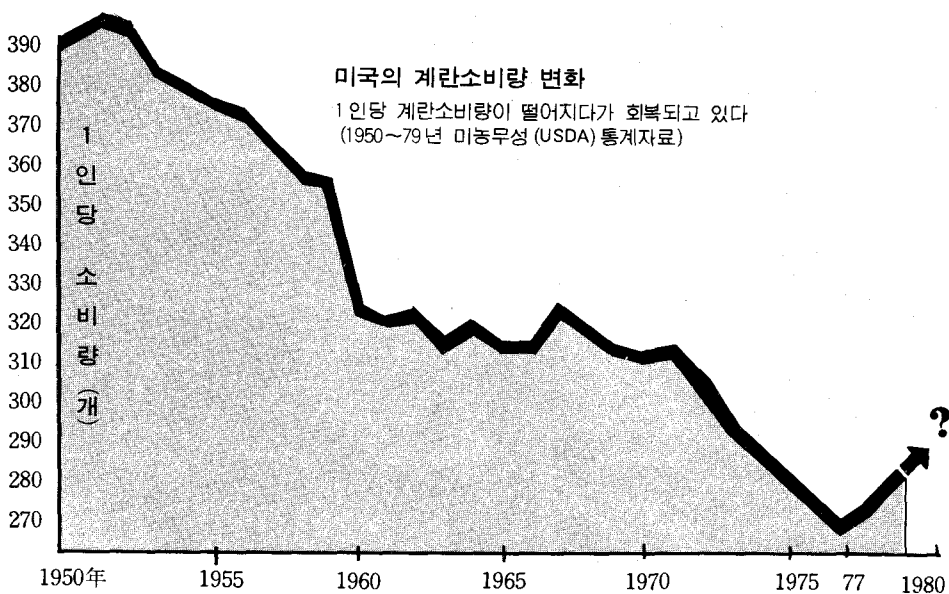
모든 먹을거리가 식량수급의 대상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

더우기 양계업자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의 축산물 수요를 쇠고기 위주에서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점차 바꾸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1969년 부터 10년간 1인당 육류 소비량증가 추세를 보면 쇠고기가 2.78배, 돼지고기는 2.42배 증가한 데 비하여 닭고기는 1.75배, 계란은 1.71배 증가로 소비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자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일 배려를 크게 기대해 볼 만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1977년을 기준으로 다시 계란소비량이 증가하게 된 것은 AEB(미국에그 보드)의 피나는 소비자 홍보의 결과로 보고 있어 생산자의 노력에 따라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계란소비가 급격히 떨어진 데는 아침식사에 계란 후라이 대신 간편한 가공식품이 생겼다는지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콜레스테롤 공포에 의한 것은 배놓을 수 없다.



미국의 년도별 1인당 계란 소비량 변화표

년 도 별	71	72	73	74	75	76	77	78
식 탁 용	275	269	260	252	248	241	235	242
공 업 용	37	35	31	34	32	33	37	35
합 계	312	304	291	286	280	274	272	277

흔히 의사들이 40세가 넘으면 계란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하여 1960년 이후 매년 1인당 평균 4개의 식탁용 계란 소비가 줄어들어 왔었다.

1977년 AEB는 매년 떨어지는 소비를 막고 소비증가를 위해 일대 홍보전을 폈는데 공통표어로 「계란은 놀라운 식품」(The Incredible Edible Egg)이라고 홍보하고, 또 계란중의 콜레스테롤이 인체에 해롭다는 학설이 변화하여 무해한것이 밝혀지므로써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7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광고홍수로 국민학교 학생들의 30%가 샌드위치로(도심지나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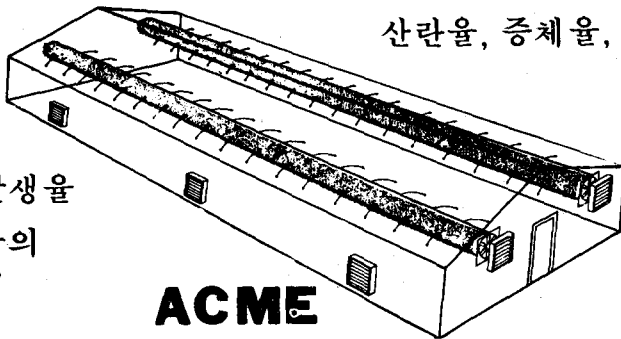
지역) 바뀌어 가고 있으며 밥을 싸오는 어린이도 역시 빵과 우유, 쏘세지나 햄 등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렇게 식생활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계란이나 닭고기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닭고기나 계란의 소비를 위해서는 소비 홍보나 가공식품 개발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도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 되어 쌀밥을 먹지 않아서 쌀이 남게 되어 쌀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급격히 늘어나는 빵세대에 닭고기나 계란을 먹도록 하는 일을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시행함이 앞으로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아크메의 환경조절 자동시설이란 무엇일까요 ?

산란율, 증체율, 사료효율의 개선!



질병발생율  
폐사율의  
감소!

**ACME**

평당사육수

부로일러 : 65수

채란계 : 98수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심한 기후와 심한 더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위와 추위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돈으로 환산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倂 鎮 洋 行

OHJIN CORPORATION

723-4125

723-4128